

지역소멸 극복 대응방안 모색

장수군·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활성화 정책세미나 개최

장수군은 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장 우석대 최광수 교수)과 지난 25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신생명산업 기반구축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박용근 전라북도 도의원, 권광열 장수이항운동본부장, 유병남 원광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준은(쥬작가) 페니 대표이사, 강연호 원광대학교 교수, 소준호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김휘승 작가가 발제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지역소멸시기 전북특별자치도 실체구성과 활성화에 위한 대책 △디지털 전환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산업계·학계 합동대책 △지자체의 특수한 환경과 지역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최광수 회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역의 문제를 각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가



장수군은 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와 지난 25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 발굴과 함께 전북 산업과 지역에 새바람이 일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쥬작가)페니, 원광대학교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산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관련 업무를 공유하는 사업을 협조하에 진행할 예정이며, 장수군에서도 웹

소설 작가양성 프로그램과 작가 이주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수군에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꼭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민의 콘텐츠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장수군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25일 무주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름을 알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데는 축제장 전역, 행사 면면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올해는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키우고 있는 만큼 더욱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은 9일간 총 920여 명(연인원)으로, 숙담과 귀반사, 서금요법, 풍선아트 등 전문봉사 활동을 비롯해 행사장 운영과 주변 청소, 안내, 진행 등 6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귀한 시간과 재능, 노력을 기부해주실 기로 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봉사활동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이분들로 인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빛이 나고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마음도 훈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진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진춘성 군수, 전운태 도의원, 김용진 고문, 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과 홍삼특공대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 환영 율동과 홍보영상 상영 및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

진안홍삼특공대 자원봉사단은 성인 봉사자 100명,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봉사자 200명 총 30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성숙하고 열정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진춘성 군수는 "진안군을 위해 자발



진안군 홍삼특공대 자원봉사자 발대식

적으로 나서 봉사에 참여해주신 홍삼특공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홍삼 축제 기간 중 진안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진안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성공적 축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서 '무주군의 날' 행사 가져

전북현대모터스 흥경기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무주군은 '전북현대모터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가 펼쳐진 지난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무주군의 날' 행사를 열고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했다.

무주군은 경기 전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와 이해양 군 의회 의장이 시축을 전반기 종료 후에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동영상 상영하고 무주군태권도사범단원들의 공연이 진행돼 1만 5천여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경기장 입장객을 대상으로 '무주반딧불축제' 글자가 새겨진 엘이디(LED) 팔찌 2천 개와 천마고 제품 1만 개를 증정했다.

현장 관중을 대상으로 진행한 깜짝 이벤트에서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팀(4인원) 10명과 향로산 자연

휴양림 숙박권 10매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현대의 흥경기가 있는 날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태권도성지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관중 여러분이 경기도 보고, 무주도 만나면서 오늘이 조금 더 특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무주군은 경기장 등문에 무주반딧불축제 홍보지'와 '군정일침', '무주관광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을 설치하고 무주군관광 안내사를 비롯한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와 지원단 단원들을 배치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이모저모를 알렸다.

한편,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healing) 여

행"을 주제로 오는 9월 2일부터 10일 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반딧불이 신비 탐사, 1박2일 생태탐험 등 주요 행사 외에도 역동적인 축제를 위한 '치어리딩 페스티벌(cheerleading festival)'과 '청소년 끼 페스티벌(festival)', '신(新) 물벼락 페스티벌(festival)' 등 젊은 층이 참여하고 즐길 만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 등 3무(無)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지난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대표축제, 그리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으며 2023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 통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한우 콘포너르기 대회 개최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주요 행사인 전국 한우 콘포너르기 대회가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메인무대 광장에서 개최된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인원은 전국부 16팀, 읍·면부(여성) 7팀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전국 한우 콘포너르기대회 전국부 1등(1팀)에게는 150만원, 2등(1팀) 100만원, 3등(1팀) 70만원, 협동상 30만원, 읍·면부(여성) 1등(1팀) 80만원, 2등(1팀) 50만원, 3등(1팀) 40만원, 협동상(4팀) 2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경기는 200kg 콘포를 6명의 선수가 들고 25m 반화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팀원 모두 콘포를 잡고 있어야 우승팀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집중 점검

진안군은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집중점검을 나선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과 같이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하며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포함한다.

관내 초·중·고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한 예정이다.

또한 식품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뿐 아니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릴양·저열량 식품 판매 지양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홍보 △정제 저해 식품 제조·판매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